

SNUAC Asia Square Brown Bag Seminar Series, Fall 2022

현장 연구자의 눈으로 본 베트남 사회통합의 딜레마: 소수민족정책을 중심으로

김두철

베트남은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는 킨 (Kinh, 京) 족과 53 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전통적으로 킨족은 평야지대에서 수전농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반면,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산악지대에서 이동식 화전농업을 하면서, 20 세기 후반까지 계급과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자치공간(Zomia)을 이루며 살아왔다. 통일 이후 베트남 정부의 소수민족정책의 목표는 領土化(Territorialization)와 定住化(Sedentarization)로 요약될 수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1990 년대 중반 이후 실시된 임야토지배분이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소수민족사회 거버넌스의 물질 기반이었던 (공유)토지가 사적 재산으로 전환되고, 그 결과 소수민족사회의 거버넌스 붕괴가 초래되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Nation building 에서 영토화는 불가피한 과정이며 소수민족의 정주화는 유력한 정책 수단이었지만, 정주화 영토화 정책은 끊임없이 소수민족의 '일상적저항'에 부딪혀 훼손, 무력화되고, 정주화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산지자원의 이용자이자 관리자인 소수민족사회 거버넌스의 붕괴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김두철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이자 (일본) 오카야마대학의 교수이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일본 나고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UN 지역개발센터(UNCRD) 연구원, 토호쿠(東北)대학 조교수를 거쳐 1999 년부터 현직에 있다. 세계지리학회 농촌분과 위원장(IGU-CSRS)을 역임하고, 베트남 후에(Hue) 대학의 Honorary Professor 이기도 하다. 주 연구분야는 농촌지리학, 사회지리학(지방소멸, 마을만들기 등)과 베트남 지역 연구이며 2006 년 이후 90 여 차례 베트남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過疎政策と住民組織—日韓を比較して(2003, 古今書院)외 다수의 저서와 100 여편의 논문(베트남지역연구 관련 40 여편)을 발표하였다.

Date & Time: September 27 12:00-13:00

Place: SNUAC Asia Square (3rd Floor)